

한국문화교류 소식

27호 2018년 3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사무실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711호(내수동,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칼럼

배려는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



박원출

ICKC 감사, 수필가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SDSN)라는 기구는 매년 'UN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17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155개국 중 56위입니다. 상위권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흔히 말하는 선진 복지국가들입니다. 순위는 그 나라의 소

득, 기대 건강수명,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너그러움(Generosity), 자유와 믿음, 정부와 사회의 부패 등을 변수로 하여 결정합니다. 서구 상위권 국가들은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에 비해 특히 사회적 지지, 너그러움 등 사회문화적인 항목에서 만족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회적 지지의 주요 평가 항목인 “당신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언제나 필요한 도움을 줄 친구나 친지가 있는가?”라는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기부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너그러움의 평가 조사도 낮게 나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사회가 매우 각박하고 인정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적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절 가난과 전쟁으로 얼룩진 질곡의 시대를 살면서,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급격한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생각과 여유가 없 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 을 희생하면서 땀 흘려 경제적 성취를 이룬 것도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관대하고 서로 배려하며 사는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배려는 사회적 삶에 있어 가장 앞서는 원리입니다. 배려가 없으면 공동체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공중질서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약속이며 배려입니다. 교통질서를 지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같은 일도 최소한의 배려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기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기본적인 질서마저 무시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배려는 주위사람이나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이라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배려의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은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근래에 자기와 의견이 다르거나 판결이나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욕을 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대는 행태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저급하게 만들며 나아가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이런 행동은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공자님도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배려를 하지 않으면 나도 배려를 받지 못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편안하고 안정감이 생길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사물을 보다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배려는 세상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사고가 날 때마다 불법과 편법이 드러나는 것은 일을 함에 있어 배려의 마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의 인식과 실천이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때 배려 문화가 성숙되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사회를 이루어 가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풍물에 담은 모국의 심장 소리

- 한글학교 합동 발표회를 마치고 -



박은숙

해오름한국문화학교 교장

2017년 11월 25일,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주최한 첫 번째 광역밴쿠버 한글학교 합동 발표회가 있었다. 우리 해오름한국문화학교는 첫 순서로 사물놀이 '웃다리풍물'을 연주하기로 했다. 연주자들의 악기와 의상을 챙기는 내내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열 명이 오늘 연주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불참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가끔 아이들이 심적 변화로 불안감이 커지면 양부모님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느라 중요한 일이어도 외출을 자제한다. 참여하기로 한 아이들이 혹여 불참할 경우 교사와 참여한

학생들의 부모님과 무대에 서기로 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발표회 리허설을 하는 동안 네 명이 불참한 상태로 준비된 사물놀이 의상을 입고 연주 준비를 마쳤다.

사물놀이란 쟁과리, 징, 북, 장구 등 네 가지의 타악기를 재구성하여 무대화한 우리의 음악이다. 쇠는 짹짹거리는 울림이 천둥, 번개와 흡사하고 징은 바람의 소리를 나타낸다. 장구의 잣게 몰아치는 소리를 비에 견주듯 등실 대는 소리를 주는 북은 구름에 비유하기도 한다. 순수한 우리의 명칭은 풍물이라 한다. 이 사물놀이도 원래 풍물 곳에서 비롯된 것이다. 앉아서 연주하는 형태는 앉은반이라 하고, 서서 연주하는 풍물 곳은 선반이라 한다. 우리가 연주한 '웃다리풍물'은 경기, 충청도 지방에서 주로 연주되었고 짹이굿, 길군악, 칠채, 육채, 마당삼채, 짹쇠(또는 짹드림) 등으로 엮어져 있다. 이 풍물의 특징은 대체로 가락이 부드럽고 빠르면서도 오묘조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길군악, 칠채는 웃다리 풍물에서만 쓰이는 색다른 가락이다. 특히 쟁과리 가락이 많이 쓰이고 마지막 짹쇠놀음은 웃다리 풍물의 결정적인 맛과 멋을 더해 줄 신명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연주 시간이 정해진 관계로 칠채와, 육채, 그리고 이채로 재구성하여 연주하기로 했다.

※ 박은숙 교장이 설립한 캐나다 밴쿠버 소재 해오름한국문화학교는 10여 년 간 입양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입양인들은 주말마다 학교를 다니며, 그들의 뿌리를 알과 동시에 박은숙 교장의 봉사로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고 있다.

‘똥똥 똥똥 똥~똥’

복으로 시작을 알리는 두 녀석의 점고와 함께 숨죽인 일채 마당이 연주 홀을 장악한다.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함께 한 십여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숨결만 들어도 아이의 마음을 느낄 만큼 기억하고 싶은 순간순간들. 더러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 아이들과의 포옹에서 만져질 때, 교사들은 양부모와 같은 사랑의 무게를 함께 나누었다.

징을 맡은 어머니가 1채 장단의 맺음을 커다란 울림으로 감싸 앉는다. 수용과 포용의 울림이다. 징이 휘감은 울림에서 한국 어머니의 모성이 느껴진다. 그 모성은 해오름 행사 때마다 그리스, 레바논, 영국, 미국, 중국, 독일, 칠레 등 세계 각국의 양부모들이 자녀 모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으로 덧입은 한국의 정신이리라.

지도교사의 쇠장단을 따라 칠채 장단에 이어 육채 장단으로 넘어가는 동안 연주에 몰입한 교사와

양부모와 아이들의 가슴 찡한 무언의 대화가 빠르고 경쾌하게 가락을 탄다. 시끄럽기만 했던 사물놀이의 시작이 오늘은 하나가 되어 무대를 꽉 채우고도 남을 혼과 신명으로 발갱게 달아오르고 드디어 마지막 이채 장단이다. 그토록 달구고, 닿고 싶었던 모국의 심장 소리를 바람과 구름과 비와 천둥의 울림으로 용광로 쇠물의 용솨음처럼 마음껏 쏟아낸다. 그제서야 비로소 가쁜 숨을 고르고 모두는 인사 곳으로 무사히 연주를 마쳤다.

연주를 마치는 순간, 참았던 감흥과 염려와 안도로 콧등아린 감동이 눈시울을 적셨다. 풍물에 담은 발표회의 풍경은 우리 모두에게 짝 찬 포만감과 사랑으로 비오는 밴쿠버의 겨울을 환하게 밝혔다. 집으로 돌아와 의상과 악기를 정돈하며 잠시 멈추고, 물밀 듯 밀려오는 그리움으로 진정 어린 사랑을 토한다. 불연소 된 알갱이에 정점의 감흥을 느끼는 내 우주는 작다. 하지만 풍물에 모국의 심장 소리를 담은 아이들의 세계엔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을 새로운 우주가 담겨 있다. 





태권도에 내재하는 ‘폭력’ 문제의 해결

Resolving Taekwondo's Inherent 'Violence' Problem



John A. Johnson, Ph.D.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무예스포츠로서 자기수양 및 자기방어 등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수양을 위한 목적으로 수련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이 태권도를 미국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태권도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학교 폭력은 해외 뉴스에서 수차례 보도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언론에서는 더욱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 관리자,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권도는 스포츠이며, 자기수양 및 비폭력과 자기 방어를 가르치는 신체 훈련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인들은 타인에게 상처를 입

힐 수 있는 태권도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학술 연구를 인용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이는 학술 연구 자료 및 결과의 해석 방법을 모르는 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더욱이 새로운 태권도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태권도를 재구성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기존의 태권도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태권도는 지금처럼 지속되어야 한다.

태권도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그 답이 있다. 태권도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다섯 가지 기본정신을 내포한다. 이러한 개념은 보편적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상적인 태권도 수련이 5대 정신을 가르치고 체득하여 강화시킬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요즘 세대가 타인의 요구에 무례하고 배려가 없다고 말한다. 태권도의 첫 번째 정신인 예의는 이러한 비관적인 견해에 대응한다. 학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은 단순히 타격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수련을 시작할 때 다섯 가지 정신을 낭독하여 예의가 무엇을 의미하고, 언제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자기 자신과 사회의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의 예의 개념은 유교의 관습과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의 예의는 그렇지 않다. 이것

이 미국 학교에서 태권도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 내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은 예의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확립했기 때문에 옳고 그른 행동의 차이점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Maieutic method)은 태권도 정신을 교육하는데 이상적이다. 학생들에게 수련 시작 또는 끝 부분에서 예의 바른 행동을 묻는 것만으로도 예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끔 하고 수업시간 내에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다. 또한 태권도 지도자들은 예의 바른 행동을 한 학생을 격려함으로써 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준다.

염치는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다소 어려운 개념이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염치를 가르칠 수 있다. 태권도 지도자는 문답법을 통해 수련자들이 염치 있게 행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염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인내와 백절불굴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인내는 행동과 관련이 있고 백절불굴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인내는 힘든 일을 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배울 수 있다. 부모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숙제, 집안일을 하거나 또는 참을성 있게 부모를 기다림으로써 인내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태권도를 통해 신체적인 수련을 반복하고,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함으로써 인내를 배울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승급이나 칭찬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인내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정신력의 성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수련자들이 인내심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백절불굴은 행동보다 감정에 더 의지하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거나 올바른 일을 행하기 위해 어려운 난관에도 굽히지 않는 굳은 의지를 말한다. 이것은 인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내적 감정이다. 백절불굴의 정신을 통해 수련자



사진출처: 태권도신문

는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올바른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바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태권도 지도자는 수련자로 하여금 때때로 인생의 고난을 겪더라도 올바르게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게끔 할 수 있고, 개인의 사례를 기반으로 백절불굴의 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극기를 지도할 수 있다. 극기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감정,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김'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태권도에서는 지르기 또는 발차기와 같은 동작을 백 번 이상 반복 수련하게 하여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극기를 승화하게 한다. 또한 수련자는 겨루기와 격파를 통해 자기의 감정이나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는 극기를 배울 수 있다. 한편 극기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도자는 수련자가 화가 난 상황이나 상처받은 감정을 토론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지도자가 수업 시간에 화를 내는 상황을 보여 주면서 조언을 하면 수련자는 감정 조절을 함으로써 재교육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왜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극기 훈련은 도장 내부뿐만 아니라 도장 외부에서도 극기를 적용하는 것이다. 극기는 도장에서의 예절과 함께 비폭력적인 행동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태권도는 도장에 출입할 때 인사하기(물건에 대한 존중), 선후배에게 인사하기(삶의 지위와 위치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함), 청결한 도장과 도복 유지하기(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을 존중함) 등 도장에서의 예절을 강조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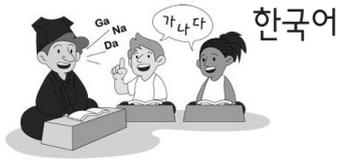


사진출처: 국기원

일부 미국 학교에서 태권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의 교육 프로그램 예산 삭감은 이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권도가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존립하려면 태권도가 학생들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수업 시작 또는 종료 전 5분 동안의 태권도정신 교육은 태권도 수련이 폭력을 유발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우리는 태권도 수련 경험을 통해 적절하고 비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고 아울러 태권도장 외부에서도 수련한 내용을 똑같이 행동하도록 권장할 때,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라는 다섯 가지 태권도정신은 미국 학교에서 제공되는 여타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학생들 스스로가 폭력적인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교육적인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는 무술(martial arts)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표출하기 이전에 우선 정신 교육을 시킴으로써 서양 스포츠가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교육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국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원문 번역 및 검토·보완: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및 ICKC 사무국



해외 한국어 · 한국학기관 1천348개로 10년새 2배 ↑ ... “경제 · 한류 영향”

해외에서 한국어·한국학(이하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과 연구소가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이시형)이 발간한 '2018 해외한국학백서'에 따르면 해외 한국학 강좌 운영기관은 2007년 55개국 632개에서 2017년 105개국 1천348개로 증가했다.

한국학 강좌 기관의 증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변화, 한류 확산, KF의 꾸준한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백서에는 국가별 현황 이외에 최근 10년간 한국학의 지역별 발전현황을 소개한 15편의 전문가 논문도 담겼다. 이시형 이사장은 “해외 한국학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주류 학문으로 부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재단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백서가 정부·대학·연구기관 등이 해외 한국학 정책을 펼칠 때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_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2018/01/22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및 본회(ICKC) 총재, ‘올림픽난민재단’ 이사로 선임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최근 출범한 ‘올림픽난민재단’의 이사로 선임됐다. IOC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올림픽난민재단의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소식을 전하고 재단 이사진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이사회는 8일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서 열렸다. IOC는 지난 9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총회에서 올림픽난민재단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당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스포츠를 통해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재단을 만들게 됐다”고 재단 출범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재단 이사장은 바흐 위원장, 부이사장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가 맡는다.

로잔에 본부를 둔 올림픽난민재단은 역경을 견디며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난민 청소년들과 이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활동을 펼친다. 재단 이사로 활동을 시작한 조정원 총재는 “2016년 출범해 전 세계 난민 청소년에게 태권도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권도박애재단(THF)의 경험을 살려 올림픽난민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_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17/12/12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2017년 ICKC 송년회

2017년 12월 28일(목), 본회가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하는 마리소리음악연구원의 '어울사랑 송년음악회'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2017년 ICKC 송년회를 가졌다.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본 공연은 실내악단 어울림의 연주와 함께 펼쳐지는 다채로운 한국 전통춤을 감상하며 우리문화의 멋과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공연 후 마련된 연회 자리에도 많은 회원분이 참석하여 서로 감사를 전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것을 기원하며 자리를 마쳤다.



■ 재외동포신문 주최 '2017 올해의 인물 시상식'

재외동포신문 주최 '2017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2월 12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본회 조남철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였고, 아울러 행사의 성공적 진행 및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일환에서 소정의 금액 또한 후원하였다. 재외동포신문이 창립 당시부터 선정해온 '올해의 인물'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동포사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해 그 뜻을 기리는 의미로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로는 김용완 북경한국인회 회장(한인회 부문),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 회장(한인경제 부문), 최성 고양시장(정치·행정 부문), 최미영 다솜한국학교 교장(교육 부문), 강진중 스웨덴 한인입양인후원회 회장(사회봉사 부문), 이기항 이준아카데미 원장(문화 부문), 김서경-김운성 부부 조각가(예술 부문), 권병현 미래숲 대표(특별 부문) 등 8개 부문 9명이 선정됐다.



2017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17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게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재근 구병진 구철회 김건길 김동현 김명수 김복음 김성열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응철 김정수 김정복 김정일 김정택 김제방 김종익 김진원 김진태 김호일 류성식 문영호 박관용 박경명 박신재 박용수 박원출 박익근 배대환 성효동 심재익 유영찬 유지효 윤윤식 이대근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영섭 이용선 이정남 이창걸 이향구 이현목 장호익 전영섭 정상철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준연 조평규 추호석 최준영 표재순 홍계화 황경애 신한금융지주,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제일E&S(주), (주)P&H (가나디슨,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총액 : 75,075,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2012.10.02.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
2017.03.30. 총회 및 창립 6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산동 회장
박갑수 前 ICKC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방송대 교수

부 회 장 김성진 前 한경대학교 총장
김재현 前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비서실장
김옥량 폭두박물관 관장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서 혁 연구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종국 경희대학교 교수
이동민 한국IMS 대표
이종택 선진회계법인 대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66호).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 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2000만원 이상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립 7주년 기념 포럼에 초대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덕분에
ICKC는 올해로 창립 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포럼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미래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일 시_ 2018년 3월 30일(금) 14:30 ~ 17:00
- 장 소_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프로그램_ [총회] 개회사 및 경과보고
[포럼] 주제 :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미래
강연 : “공존: 한국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
- 고운기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찾아오시는 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T. 02-2001-7652



-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④번 출구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⑥번 출구
- *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사장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